



보험회사, 이머징리스크 관리의 중요성 증대

김혜란 연구원

영향

A. M. Best(2020)는 미국 보험산업이 직면한 10대 이머징리스크(Emerging Risk)를 선정하고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함. 미국 보험산업의 경우 10대 이머징리스크 중 기후변화, 사이버, 마이너스 금리, 유전자 검사, 전염병 리스크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. 보험산업은 준비가 부족한 이머징리스크를 전사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

■ A. M. Best¹⁾는 최근 미국 보험산업이 직면한 10대 이머징리스크(Emerging Risk)를 선정하고 관리의 중요성을 지적함

- 이머징리스크는 새롭게 출현한 리스크일 수도 있으며, 현존하는 리스크로 보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리스크²⁾로 정의될 수 있음
- 10대 이머징리스크는 기후변화, 사이버, 자본시장/경제/금융, 기술 발전, 노후화된 IT시스템, 입법 및 규제, 전염병/팬데믹(세계적 대유행), ESG(Environment·Social·Governance), 정치 그리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임
 - 60개 이상의 잠재적 리스크가 보험금청구의 빈도 및 심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
- 이머징리스크는 과거의 경험을 활용한 평가와 정량화가 어렵고, 리스크 자체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, 다양한 요인들의 결합으로 위기가 증폭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리가 중요함

■ 10대 이머징리스크에 대해 미국 보험산업이 이를 인식하고 준비하는 정도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(표 1) 참조)

- 보험산업은 전통적으로 규제산업에 속하고, 고령화라는 인구통계학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만큼

1) A. M. Best(2020. 3. 11), "The Growing Importance of Emerging Risk Management"
 2) LLOYD'S(2017. 7. 13), "Emerging Risks"

- 규제리스크 및 장수리스크에 대한 준비는 잘되어 있음
- 또한 보험산업은 노후화된 시스템, 기술의 발전, ESG 및 자본시장 등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 시스템 교체, 기술의 도입, ESG를 실천하는 기업에 투자 그리고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 및 저금리를 대신하여 대체자산에 투자하는 등의 리스크 경감 계획을 가지고 있음
 - 그러나 보험산업은 기후변화, 사이버, 마이너스 금리, 유전자 검사 그리고 전염병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
 - 기후변화와 관련해 손실이 크고 과거와는 다른 자연재해 발생하고 있지만, 보험산업은 가격 결정에 있어 과거 경험치를 여전히 활용하고 있으며, 사이버 리스크와 관련해 생명/연금산업의 고객정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
 - 저금리 상황에서 마이너스 금리가 될 확률은 낮아 준비가 미흡하지만, 이미 독일과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가 보험업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
 -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해짐으로써 만성질환자의 보험금 청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하며, 전염병의 경우는 영향의 크기 및 범위가 알려지지 않아 보험회사가 이해하기 어려운 리스크임

〈표 1〉 이머징리스크의 영향력 및 미국 보험산업의 준비 상태

구분		보험회사의 준비 상태		
		상	중	하
이머징 리스크의 영향력	높음	- 고령화(인구 통계학적 변화) - 규제	- 홍수, 허리케인 (기후변화의 영향) - 노후화된 IT 시스템 - 기술 발전 - ESG - 자본시장/거시경제/금융	- 기후변화 - 사이버 - 마이너스금리(자본시장/거시경제/금융) - 유전자 검사(기술 발전) - 전염병
	중간	-	- 보호무역주의(정치적)	-
	낮음	-	- LIBOR 금리에서 전환·전자담배·대마초의 합법화(입법)	-

주: 10대 이머징리스크를 14개로 세분화함
 자료: A. M. Best(2020. 3. 11)를 재구성

■ 보험산업은 준비가 부족한 이머징리스크를 전사적 리스크 관리(Enterprise Risk Management)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

-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 보험회사들의 초기 보험금청구에 대한 예상은 낮은 수준이었지만, 세계 경제의 침체라는 시장/거시경제 리스크로 인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증가와 투자 손실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³⁾

- 대부분의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계약에서 전염병은 보장하지 않지만 불황의 심화로 글로벌 보험회사의 무역신용보험의 보험금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, 뮌헨리의 경우에는 사망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생명보험의 손실을 보고되고 있음
- 또한 채권금리 하락 및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 자산운용에 있어 큰 손실이 예고되고 있음
- 보험회사는 전사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, 이머징리스크의 잠재적 영향을 정량화하고, 위험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리스크 경감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계해야 함 **kiri**

3) Carolyn Cohn(2020. 3. 12), "Insurers face double whammy from coronavirus crisis", Reuter